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5호 (2004 겨울)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05년 을유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을 알려주는 닭의 활기찬 기운 속에서
송실 철학 동문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동문회 회장단 일동-

송실 철학 동문회 2005년 신년하례식

- ♣ 일시 : 2005년 1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 ♣ 장소 : 상도동 한증막 사리원 (tel. 02-814-6022)
(학교에서 장승백이 방향으로 한 정거장 아래에 위치)
- ♣ 회비 : 15,000원

함께 자리하셔서 신년 인사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 사색을 위한 인용 □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김 두 식(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상 또는 양심, 즉 공산주의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세력에 대해서 까지 민주주의를 인정해주다가는 까딱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가피하다는 개념입니다. 1956년 8월 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때 사용한 논리가 헌법이론으로 구체화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예컨대 헌법에 구체화된 기본권들, 특별히 생명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개인의 권리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책임정치, 행정의 합법률성, 법원의 독립,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기회 균등 등)을 인정하지 않는 당헌, 강령을 가지고 있거나 정당간부의 활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제' 및 이를 위한 '폭력혁명'을 당헌과 강령으로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 적대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해산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자유는 허용되지만, 민주주의를 뒤집어엎을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그 근본을 흔들고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당을 불법화할 수밖에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주장은 일단 타당해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우선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런 논리가 실제로 적용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처음 구체화된 독일에서도, 1968년부터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형성된 이후에는

공산당이라 해도 굳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해산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나라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걸핏하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원래는 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알맹이는 빠져버린 민주주의의 껍질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맹이 빠진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허수아비 시민이 되지 않으려면, 방어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는 공산주의자라면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남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가 출판되었다고 칩시다. 기독교인인 저는 그 작품에 대해 청소년의 영혼을 좀먹는 쓰레기 같은 책이라며 구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이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를 붙잡아 가려고 할 때에는, 마광수와 어깨를 곁고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저의 책이 청소년들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명분으로 판매금지되고 제가 붙잡혀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일종의 형제관계이듯, 그 우산아래 보호를 받는 우리 '이상한 사람들'도 헌법 아래에서는 일종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pp.227-231

책문, 그 시대의 물음 속으로...#

김 태 완

책제는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며 분별하는 방법에 관해 논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희맹은 군주가 교화를 숭상하여 현명한 사람을 불러 모아 밝은 마음으로 인재를 분별할 것, 자신을 비우고 인재를 등용할 것, 인재를 기용할 때는 재능에 따라 적합한 자리에 맡기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할 것, 정치를 바르게 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등을 주장했다.

(중략)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만이 아니다. 교육의 고유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가 한 성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세계관과 건전한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 기관의 명칭이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데서 우리는 교육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한 시민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국가가 필요한 고급 인재나 영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의 평등이란 교육받을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하자는 것이지, 피교육자의 능력을 평준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의 개성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재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피교육자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지, 교육을 관장하는 권력이 피교육자의 능력을 키워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1447년 세종 29년 문과 별시의 책문이었던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강희맹(1424~1483)의 책문 속으로 들어가 그 일부를 발췌하였다.

경복궁의 경회루 연못에는 나지막한 담에 기대어 있는 특이한 누각이 하나
 서 있다. 보통 누각이나 정자는 네 기둥이 받치고 있거나, 아니면 기단에 세워
 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경회루 연못의 누각은 돌기둥 두 개가 연못 속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누각의 몸체는 연못 독에 올라 앉아 있다.(중략)

좋은 인재가 주위에 많기를 바란다면 인재가 저절로 찾아들도록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가 덕을 숭상하면서 바른 몸가짐과 생각을 갖고 올
 바르게 판단하면, 군자가 모여들어 나라가 발전한다. 하지만 사치와 향락을 즐
 기고 아첨과 참소만 받아들이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인이 모여들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궁궐을 산책하는 군왕이 주위에 군자가 모여드는가, 소인이 모여드
 는가 하는 것을 자기 탓으로 반성하라고,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정자를 세워
 두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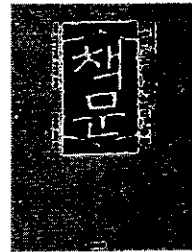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출판부, 2004) pp.298-324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김태완 풀고 쓰다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펴냄



세종부터 광해군까지 조선의 왕들이 건넨 책문과, 이에 조광조, 조위한, 강희맹 등
 신들이 답한 대책들이 실렸다. - 책문은 젊고 싱싱한 녀을 가진 지식인이 시대의
 부름에 대답하는 주체적 결단의 절규이다. 그것은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시대의
 부조리에 반항하며,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려는 시대의식의 투영이었다. 또한 그
 는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지금까지 같고 닮은 실력과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해,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한 젊은이의 청사진이기도 했다.

10개월 남짓 중국 생활에서 남는 것은...

구 태 환

중국에 10개월 남짓 있었지만 여행은 별로 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거의 혼자 지냈었기 때문에 함께 여행할만한 친구가 없었고, 혼자 다니기에는 내 중국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기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직접 겪은 생활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할까 한다. 미리 말해두자면, 중국은 굉장히 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감상문 역시 수박 겉핥기일 뿐이다.

장면 하나

8,90년대에 대학생살을 한 사람은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기대가 내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에 간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이다. 심양 숙소 부근에 담배공장이 있었는데, 밤에 그 앞에서 '매매춘'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전부터 중국에서 매매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위험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구경' 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몇몇 여성들이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말로 호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드는 것이다. 언뜻 보니 발바닥에 야광으로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보았다. '20원'..., 어떤 여인의 발에는 '1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민폐 10원이면 우리 돈 1500원 정도인데, 그 돈에 몸을 팔겠다는 거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부근에 경찰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 경찰들도 매매춘과 연관이 있구나!

장면 둘

천진에 있을 때, 동네에 사는 한국인 친구 내외와 간혹 외식을 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은 주로 수산물을 요리하는 곳으로서 상당히 고급스러웠고 맛도 괜찮았다. 중국의 좀 괜찮다 싶은 음식점은 대부분 규모가 대단하다. 그 음식점도 천 명까지는 아니라도 수백 명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예약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음식점에 갔다가 황

당한 경험을 했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그 음식점에서 우리 세 사람이서 식사를 하면 인민폐로 400원, 우리 돈 60,000원 정도가 든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천진 노동자 평균 임금이 800원 가량이다. 그렇다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계산이 안 나온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와 유사한 규모의 음식점으로 자리 찾기 순례를 시작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먼저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화내지 말라고 옆에서 말리던 친구 입에서도 결국은 욕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에서 돈이 나서 이런 음식점을 '점거'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의 빈부격차가 크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날 우리는 용케도 자리가 비어있는 음식점 두 곳을 찾았고, 결국은 두 번째로 찾았던 식당에서 쓸쓸하게 식사를 했다. 먼저 빈자리를 찾아낸 식당은 들어갔다 그날 나왔다. 그곳에서는 최소한 일인당 인민폐 300원, 우리돈으로 45,000원은 있어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당시 한 달 생활비가 인민폐 400원 미만이었으니, 도저히 그곳에서 식사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빈 자리도 거의 없었다.

장면 셋

천진의 집 부근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었다. 1층은 안경점, 식당 등 일반 점포가 입주해 있고, 2,3,4층은 우리식으로 하면 대형 할인매장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내 한국 친구는 주로 이곳에서 생필품을 구입했다.

천진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곳에 가서 커다란 주전자를 구입했다. 중국 물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때문에 생수를 시켜다 먹었다. 그런데 그 생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물을 끓여먹기로 한 것이다. 구입한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여서 물을 마시려 하니 물속에 검은 부유물이 떠 있었다.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끓여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유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도 이상해서 손전등으로 주전자 몸통과 주둥이의 연결 부위를 비춰보았다. 세상에나! 그곳에 시꺼멓게 때가 끼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바꾸러 갔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친구를 데리고 말이다. 1층 환불 코너에서 물건 교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담당하는 여직원이 '당신들이 물을 잘못 끓이는 바람에 이렇게 때가 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내 친구는 열심히 따졌다. 그 싸우는 소리에 1층에 입주한 상인들이 차츰차츰 모여들었다. 중국인들은 구경을 참 좋아한다. 친구는 더 윗사람이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한 중년 남성이 나왔다. 그는 더 가관이였다. '이 주전자가 우리 상점에서 판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다. 물론 영수증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인 것이다. 이제 싸움이 더 재미있어진다. 이 중년 남성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말이 잘못

된 것 같았는지, 이야기 상대를 우리가 아닌 구경 온 주변 상인들이나 고객들로 슬쩍 바꾸는 것이 아닌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 한국애들이 억지를 쓴다'는 말인 것 같았다. 물론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 모두 중국인들이고, 몇몇은 이 중년 남성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들까지 그 중년 남성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정말 중국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었다. 화가 머리꼭지까지 난 우리는 사장을 불러오라고 했다. 사장이란 친구는 좀 젊고 말이 통했다. 결국 내 친구의 설득에 의해서 나는 그날 주전자 값인 인민폐 56원, 우리돈 약 8000여원을 돌려받았다. 40분 싸워서, 그리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로 말이다. 결국 그날 주전자 값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술값으로 날렸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농수산물은 부근의 재래시장을, 공산품은 택시값 들어가며 먼 곳의 서양계 매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나와 내 한국 친구는 중국인들, 특히 제복 입은 자들이나 공무원들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면 중국인들만 가는 허름한 식당에 가서 술 한 잔 하곤 했다. 그런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서빙하는 중국인민들의 힘들어 보이지만 밝은, 정말 밝은 표정을 보면 또 다른 중국인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철학과 동문들께서 혹시 중국 여행을 하게 되시면, 허름한 뒷골목의 식당에 들어가 보시길 권한다. 물론 도둑이나 강도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64회 · 송실대 대학원 박사 수료)

◇저서 빨간줄 축하합니다◇

박삼열 외 (서양근대철학회)

서양 근대 철학의 열 가지 쟁점

창비 펴냄

르네상스부터 칸트 이전의 유럽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양근대철학회의 26명이 열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서양근대철학에 대해 소개한 책, 물질과 운동, 방법, 지식, 지각, 실체, 자아, 정념, 도덕과 자유의지, 개인과 사회, 신과 종교의 쟁점들을 다루었다.

책임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인간복제



이 종 원

책임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인간복제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복제기술이 초래할 위험이나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하고 경계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함이 나의 논문의 목적이다.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윤리문제에 대해서 전통 윤리이론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책임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책임적 생명윤리는, 첫째, 원칙중심적인 윤리규범이 간과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실 상황을 분석하면서 적합한 응답을 모색한다. 현실에 대한 보다 적합하고 바람직한 응답은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책임은 우선적으로 생명공학에 게 부과되지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기술의 적용이 미칠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확장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현재 당면한 윤리 문제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며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책임적 생명윤리는 원칙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면서 보다 신중한 도덕적 판단과 결단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둘째,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에서 통합이론의 관점을 갖는다. 통합이론의 관점은 자연은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하나님의 창조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창조된 공동창조자로서 인간은 이러한 지속적인 창조과정에 보다 책임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셋째, 생명공학기술의 영향력이 생태계 뿐 아니라 후세대까지 미친다는 점을 주목한다. 현재 진행되는 생명공학의 성과물들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를 포함한 미래까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책임의 지평은 자신과 생태계와 후세대를 포함하여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된다. 책임의 비중이 커질수록 생명공학적 연구나 실험은 더욱 신중하게 되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평의 확장을 통해서 검증된 윤리적 판단은 보다 책임적이며 적합한 행위가 된다.

책임적 생명윤리는 세 가지의 준거들을 갖는다. 니버의 현실에 대한 보다 응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의 윤리'를 통하여 '생명주권주의'라는 관점을, 요나스의 '후세대를 위한 책임윤리'를 통하여 '생태중심주의'라는 관점을, 슈바이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하여야 한다는 '통전적 책임윤리'를 통하여 '통전적 사회윤리'라는 관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책임적 생명윤리는 생명주권주의와 생태중심주의와 통전적 사회윤리라는 관점에서 인간복제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인간복제를 찬성하는 주장들 가운데는 자유주의와 개량주의가 있다. 자유주의는 생식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면서 인간복제를 찬성한다. 개량주의는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여 보다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나 개량주의의 접근은 책임적 생명윤리의 시각에서 볼 때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주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의무론적인 반대와 결과주의적인 반대가 있다. 의무론적인 반대는 인간복제는 본질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주의적인 반대는 인간복제가 나쁜 결과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무론적인 반대는 인간복제는 인위적이고 조작된 기술이며, 인간을 도구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비인간화시키며,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론적인 반대는 인간복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신체적인 해악과 심리적 해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며, 인간복제가 피실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시되며, 인간복제의 결과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기능의 약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멸종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수준까지 이르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규제하고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이 배어있다. 또한 인간의 이기심이 작용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불멸을 추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인 반면, 인간의 복제기술은 유로부터의 창조이다. 따라서 창조된 공동창조자로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함과 동시에 인간 역사의 창

조과정에 책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기술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기술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선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게 될 때,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신중한 논의가 요청된다. 인간복제에 대한 조급한 반대보다는 복제기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인간복제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은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책임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생식을 위한 인간개체복제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생식을 위한 개체복제는 기술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해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절박한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F시술 후 필연적으로 남게 된 배아를 치료차원에서 사용할 경우 고통당하는 수많은 유전병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이중효과의 원칙에 근거하여 잠재적인 배아의 파괴보다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돌봄의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는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범위 내지 내용'의 문제로 판단된다. 생명공학자의 책임의 비중은 크다. 이러한 책임을 부과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동기와 연구과정과 그 결과까지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해악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치료차원의 기술만을 허용함으로써 생명공동체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다.

책임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생명공학기술이 초래할 위험이나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하고 경계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생학적인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우생학은 바람직한 인간과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유형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치명적인 해악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생명공학기술에 상업화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화가 개입될 경우 연구의 순수한 동기가 상실되며, 생명공학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책임적 생명윤리는 생명공학기술이 생태계전반에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이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며, 생명공동체의 통전성을 고양시키고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63회)

□ 草聲祭 이야기 □

승실 철학 50년, 그리고 초성제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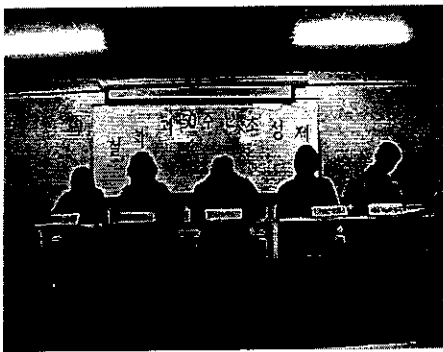
안 재 형(99학번)



매년 교내 행사였던 초성제가 올해는 승실 철학 50주년과 맞물려 학교를 벗어나 강원도 춘천에서 치러졌다. 초성제는 철학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회들이 나름의 주제를 정해 발표하는 학술 축제로써, 올해는 학회발표가 행사의 전부였던 예년과는 달리, 동문 선배 강연회와 철학과가 지나온 날과 지금의 모습에 대한 영상물 상영 등으로 그 내용이 다채로웠다. 동문 선배 강연회는 현재 승실 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 등의 수업을 맡고 있는 79학번 김선욱 동문이 평소 가르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선생의 입장에서가 아닌 선배의 입장에서 진로선택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했다. 철학과에 대한 영상물 상영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98학번 김원영과 01학번 곽석이, 최명관 선생과 지금 강단에 서고 있는 교수들의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후배들이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영상물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학술 발표에서는 현재 철학과에서 활동 중인 사회철학학회와 동양철학학회,

언어예술분과, 이 세 학회가 준비하였는데, 사회철학학회는 '플라톤의 「국가」



에 나타난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플라톤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본다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동양철학학회는 '변화와 관계를 통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상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그에 대한 장자적 해결을 모색해본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언어예술분과는 E.T.A 호프만의 작품 「모래 사나이」를 통해 인식에서의 환상에 대한 발표를 했다. 학회별로 나름의 성과를 보여준 건 좋았으나, 학회별로 학회원이 부족하다거나, 1학년 위주인 점과 같은 학회 내의 문제점과 학회에 대한 철학과 전체의 어떠한 지원이 없고, 요즘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정도로 생각하여 학술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다

는 외적인 문제 등으로 학술발표의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여러 문제 중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하여 좀 더 수준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술 발표가 끝난 뒤 철학과 소속 풍물패인 '소리벼리'의 공연과 밴드 '왕후장상'의 공연도 인상 깊었다. '소리벼리'는 이전의 풍물패가 전체 앰티에서 대동제를 하기 위해 급조되었던 것과는 달리 팀원들 간의 오랜 연습을 통해, 따로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솜씨를 뽐냈으며, '왕후장상' 또한 개성 넘치는 무대를 통해 젊은 모습을 보여주며 참석했던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었다.

승실 철학 50주년 기념행사를 겪었던 올해의 초성제는 다채로운 내용에 비해 재학 중인 학부생을 비롯해 승실 철학 동문들의 참여가 미비하여 행사 자체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음해의 초성제는 승실 철학인 모두가 참여하여 진정한 모두의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존재의 의미나 기호의 의미나 -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의미론



박 이 문#

이 글에서 필자는, 의미를 존재에 종속된 속성으로 보는 하이데거의 입장과 의미를 기호에 종속된 속성으로 보는 데리다의 입장의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대립구도를 '존재의미론적 매트릭스 the onto-semantic matrix'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하이데거까지의 전통적 언어철학에서는 의미론을 존재 기의(記義) 중심적 의미론이라고 보고, 데리다의 해체론적 언어철학에 함축된 의미론을 인식 기표 중심적 의미론이라고 보고서 양자의 대립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3의 독자적 시각의 도입이 성공한다면 리얼리즘과 아이디어리즘, 정초주의와 구성주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간의 대립이라는 철학적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자는 먼저, 앎은 인식 주체의 의식과 그 대상 간의 '의미적' 관념관계의 한 양식이라고 보는 하이데거의 입장을 분석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들은 존재의 부분이 아니고 개념적 제품이며, 존재성은 존재자들의 개념적 집합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존재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철학의 진정한 물음이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다는 하이데거의 주장에 물음을 던진다. 즉 나는 '개' 혹은 '사랑'을 안다라는 말과 나는 '개'의 의미 혹은 '사랑'의 의미를 안다라는 말의 표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묻는다. 또한 하이데거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갖는다면, 그것은 언어의 의미론적 의미만을 지닐 수 있어서 '의미'는 기의와 대칭되는 기표로 취급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의는 기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고, 또한 기표 역시 자신과 독립된 무엇으로서의 기의가 전

이 글은 2004년 11월 25일에 열린 제11회 승실철학강좌의 강연문을 요약한 것으로, 강연자인 박이문 선생은 연세대 특별초빙교수이다.

제되지 않는 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일 하이데거가 사용한 ‘의미’라는 말이 중요한 언어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기호 혹은 기표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의미’는 존재의 의미이며, 이 때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정된 기호에 부여된 인위적 속성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미 전제된 근원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해체주의적 철학을 내세운 데리다의 견해를 분석한다. 데리다는, 전통적 인식론이 지각적 경험대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실체를 전제하는 형이상학에 뿌리박고 있는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 로고스 중심주의는 ‘인식되지 않은 존재 혹은 실체의 확실성’이 전제되고 있는데, 이 전제는 개념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논리적 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인식이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관념적으로 조립된 사물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은 곧 기호이며 기호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한다고 전제된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기호 자체들 간의 기호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데리다의 주장에 대해, 과연 세계 존재 실체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던지며 그 주장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대상을 전제하지 않는 인식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필자는 ‘의식과 대상, 기표와 기의, 언어와 존재는 인간과 자연은 각기 서로 독립되고 대립되는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지칭할 수 없는 동일한 실체의 양면으로서 마치 동전의 양면을 서로 떼어 내어 그 모습을 서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제3의 독자적 시각인 ‘존재의미론적 매트릭스’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존재의 기원인 동시에 인식의 원초적 시원지이며, 기의의 원천인 동시에 기표의 뿌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존재의미론적 매트릭스’ 안에서는 하이데거와 데리다 사이에 노출된 인식과 존재, 기표와 기의,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 보편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간에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순 관계가 상보적 관계로 파악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을 말과 언어와 기호 사이의 관계 문제는 ‘대립’과 ‘모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리: 백두환 - 70회 · 송실대 대학원 박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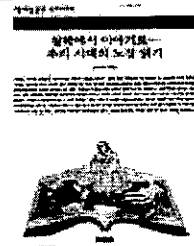
◇저서 빨간술 축하합니다◇

심의용 지음
주역과 운명
살림 펴냄



책은 길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우환과 근심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주역>은 원래 제사와 점을 치는 일을 관장하는 무당과 사관들이 점을 치는 일과 역사 자료, 생활 경험에서 우리나라 지혜가 담긴 기록들, 지은이는 <주역>이 험겨워진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각각의 패를 설명하고, 중국의 여러 인물들의 사례를 정리했다.

김시천 지음
철학에서 이야기로
- 우리 시대의 노장읽기
책세상 펴냄



<노자>와 <장자>를 통해 오늘날 한국에서 철학하기의 의미를 되짚어봄으로써 서구의 방식에 따른 철학 '만들기'가 아닌, 우리 시대의 철학'하기'를 제안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진리'를 담고 있는 단힌 경전이나 체계적인 철학서라는 이름을 버리고, 역사와 함께 전해진 '삶의 이야기'로서 <노자>와 <장자>를 보자고 제안한다.

신응철 지음
철학으로 보는 문화
살림 펴냄



칸트와 카시러, 네덜란드의 현대 문화철학자 반 피슨, 에드워드 홀과 사이드, 새뮤얼 헌딩턴, 그리고 수전 손택 등, 문화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을 소개한다.

□ 선생님과의 대화 □

짧은 만남,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 이삼열 선생님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리: 윤은주(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수료)



워낙 뒤늦게 기획된 동문회보라 어떤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지가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 와중에 학교 게시판판을 훑어보다가 지난 11월 27일에 있었던 송실인상 수상자 가운데 이삼열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다. 시상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죄송스럽기도 하고 때늦기는 했지만, 수상에 대한 축하 인사도 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갑작스레 전화를 드렸다.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짧은 전화로나마 이러저러한 선생님의 근황을 여쭙 수 있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네요.

-우선 지난 11월 27일에 있었던 제 7회 송실인상 시상식에서 형남학술대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연유로 그 상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소감 한 말씀...

-내가 알고 있기로 송실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송실인으로서 학생이나 교수, 동문들 중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기리는 취지로 제정된 상으로 알고 있어요. 목회자나 경제, 학술 분야 등 다양한데, 형남학술대상의 경우는 특별한 책이나 저술보다는 학자로서 학계에 공헌한 바나 일상적인 업적이나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서 준 것 같아요. 아마 이십여 년 동안 송실대에서 봉사하고 유네스코에 나가서 아시아태평양교육원장으로서 사회 및 국가적으로 공헌하였다는 것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학교에 있을 때 사회봉사판도 있고, 기독교사회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저술 활동도 하고, 기독교 대학원을 통해 목회자 양

성이나 기독교 윤리, 사회 선교 등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지 않았나 싶군요.



-현재 계신 유네스코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현재 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유네스코는 UN에 속한 기구로 교육, 과학, 문화에 관련된 국제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지요.

-학교에는 언제쯤 되돌아오실 건가요? 너무 오래 비워두신 것 같아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위원장만 끝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선출 되고나니 임기가 다시 4년 더 늘어서 학교로 돌아가긴 어려울 듯싶군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승실 철학인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1982년에 승실에 들어와서 2005년이 다가오니까 벌써 23년이네요. 정든 교정과 철학과를 떠나는 아

쉬운 마음이 크군요. 사회에 나와서도 학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실대 철학과 학생들도 열심히 분발해서 승실의 철학이 가진 좋은 전통을 살려주고 빛내 주실 바랍니다.

짧은 전화 통화였지만, 내년 3월이면 학교를 떠나게 되시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왔다. 이제 교정에서 더 이상 선생님과 반가운 만남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선생님과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다.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 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예금주] 승철동문

우리은행

461-146308-02-001

동 문 회

I. 동문 소식

▶**최성섭** 동문(64회) 2004년 강릉 신흥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김두나** 동문(76회)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 과정에 2005년 3월 2일 입학하게 되었다.

▶**배선복** 동문(53회·정신문화연구원)이 지난 11월 6일 화축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 학 과

I. 교수 동정

▶**이삼열** 교수는 2004년 11월 1일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이삼열** 교수는 2004년 11월 27일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송실인상 시상식에서 형남학술대상을 수상하였다.

II. 학과 동정

▶철학과에서 11월 12일(금)~ 13일(토) 양일 간 제10회 철학과 학술제인 <초성제>를 경기도 가평 기화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였다.

▶제11회 송실철학강좌가 11월 25일 정보관 601호에서 열렸다. 이날은 박이문 선생이 "존재의 의미나 기호의 의미나-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의미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2월 9일 2005년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졸업 사은회를 가졌다.

▶2005학년도 전기에 모두 26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졸업식은 2005년 2월 18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철학과 대학원 2005년 2월에 있을 전기 졸업식에서 김광현(64회)씨가 "세계화의 문제와 보편윤리-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 대하

여”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며, 김재선(91학번)씨가 “순자의 예치와 지평에 대한 고찰”로 석사 학위를 받았게 된다.

▶철학과 대학원 2005년 전기 입학전형에서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이 합격했다. 박사과정으로 윤홍식씨가, 석사과정으로는 김기범, 양윤석씨가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었다.

알 림

1. 회비 납부

배선복 동문(53회·정신문화연구원)께서 동문회 회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철학과 동문회에서는 동문주소록을 엑셀화일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업데이트 중에 있으니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이 변경되거나, 또는 주소록에 누락되어 있는 다른 동문들의 연락처를 아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e-mail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문회를 비롯한 학과 및 학교 소식을 e-mail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e-mail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동문 주소록 화일을 보내드립니다.
승실철학동문 전체 주소록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주소록 작업은 김두나(76회) 동문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년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5호 (2004 겨울)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정영환
편집인: 김선욱
간사: 윤은주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su.ac.kr
philosophy1004@yahoo.co.kr